

On the large type font of "Hsiao-ching ta-i".

“孝經大義”大字考

尹炳泰
高麗大學校 司書

一. 머리 에

高麗朝에서發明되어 사용되었던金屬活字¹⁾는 朝鮮朝에 내려와서도繼續 그鑄字術이나組版術들을改良하고發展시켰던 것은, 先學들의 研究²⁾에서 이미 지적되어온 터이다.

오늘날, 歷代 實錄에 그 鑄成이 分明히 記錄되거나, 印出한 實物의 現存한 것이 많은 反面, 記錄에는 남아 있지 않으나, 現存한 活字本 또는 이들의 覆刻 또는 模刻한 印刷物의 殘存으로 鑄字나 刻字된 事實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筆者는 韓國古書綜合目錄³⁾을 編纂하던 當時나, 韓國古活字本圖錄⁴⁾의 資料를 整理하던中 궁금하게 여기든 것의 하나는 活字의 特大字에 關한 問題이다.

여기에서 特大字라는 것은, 字幅이 2cm以上으로 限定되어 생각할수가 있다.

이들 中에는 이미 正統의 官鑄·造活字系譜⁵⁾에 올라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거기에 오르지 아니한 活字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루는 孝經大義의 特大字도 그 하나이다. 이를 究明하게 된 것은

崇禎紀元後三癸亥十月日泰仁田以采朴致維梓라는 刊記가 있는 木板本 孝經大義⁶⁾에 特異한 大字로 된 經文이 包含되어 있음을 보았고, (圖1 參照) 또 거기에 西涯柳成龍의 跋이 있음을 보아, 이는 틀림없이 賈治通鑑綱目的 경우⁷⁾와 같이 大字가 使用된 活字本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疑問을 가지고 있던 차에, 田川孝三씨가 發表한 論文⁸⁾을 읽게되어, 그 實存을 再確認하게 된 까닭이다.

아직도 究明치 못한 여러가지 問題가 있으나, 一次로 報告하는 바이다.

二. 孝經大義에 대하여

이 책은 田川孝三씨의 論文에 의하면 尊經閣文庫에 所藏되어 있으며, 全1冊으로, 크기는 세로 35.4cm 가로 24.5cm이다(圖2 參照).

表紙는 原裝대로 남아 있으니, 外題는 없으며, 表紙裏面에

萬曆十八年九月 日

內賜司憲府掌令張雲翼孝經大義諺解合部一件
命除謝

恩

左副承旨臣李(手決)

라는 內賜記가 있어, 이 책이 宣祖23年(1590) 9월에 頒賜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孝經大義序가 3張 있으며, 머리 에 「宣賜之記」라는 方形 朱印이 찍혀 있으며,

歲乙巳陽復之月前進士武夷熊禾序大德之九年(1305)也

로 끝나고 있다. 다음에 版心題가 「孝經目錄」이라 하여, 經1章과 傳14章의 目錄 1張이 있다.

다음에 孝經大義의 本文이니, 第1張의 卷首題는 「孝經大義」요, 卷首題아래에 小字 雙行으로

朱文公刊誤

鄱陽董鼎註

라 表示되어 있다. 이 第1面의 版式은 아래의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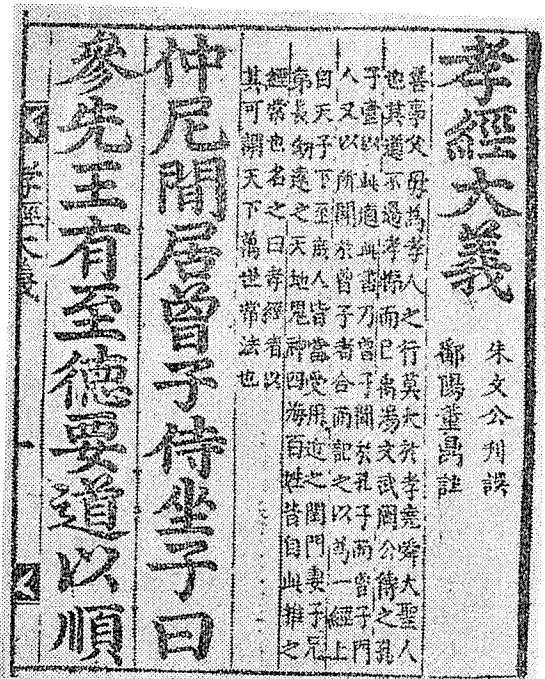


圖 1. 田以采·朴致維本 1.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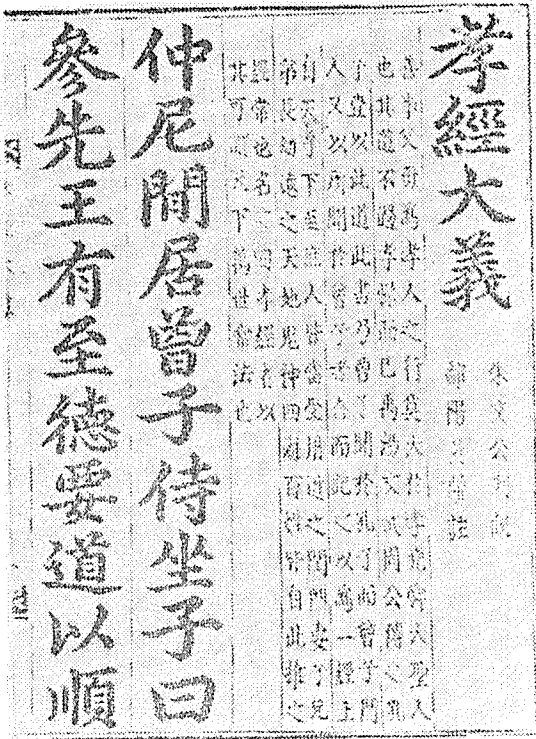


圖2. 孝經大義大字本 1.1A

四周雙邊. 半匡: 25.2×18.1cm. 有界. 大字 5行10字 (中字 10行19字) 小字註雙行19字. 版心: 上下白口. 上下內向花紋魚尾(六瓣. 單線. 單弧)「孝經大義」(張次)

이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大字는 本考에서 詳論하는 特大字요, 中·小字는 所謂 “庚辰字”라 불리우는 活字²⁹⁾로 印出되어었다고 한다, 즉 孝經의 經과 傳은 特大字로 되어 있으며, 大義는 中字, 註는 小字로 印出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本文이 모두 55張이니, 末尾에 「孝經大義終」이라는 卷末題로 끝나고 있다. 이어

成化二十二年歲次丙午(1486)秋九月甲子
賜進士通奉大夫福建等處承宣布政使司右
布政使淳安徐貫謹識

가 1張 있으니, 이 活字印出本의 底本이 이 때에 刊行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그 다음에 「孝經經義諺언解」 26張이 있고, 「孝經大義跋」이라 하여 아래와 같은 跋文이 3張붙어 있으니, 그 重要한 것을 적어 보면

(略)孔子(略)作孝經(略)至宋朱子始爲刊誤又次其經傳以復孔氏之舊繼以鄱陽董氏爲之註釋(略)我主上殿下(略)一日御經筵與儒臣論治道因歎孝經之教久廢於世又問其註疏之有無左右以是編聞即蒙 宣索覽之嘉賞將錢梓以廣其傳猶 慮窮閭愚下之民末

喻其義也下弘文館悉解以諺語使人易曉且 命<臣>略叙其後(略)萬曆十七年六月下滯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弘文館大提學(略)<臣>柳成龍奉 教謹跋¹⁰⁾, 와 같다. 이에 따르면, 宣祖 22年(1589) 6月 下旬에 이 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經文과 傳에 對하여는 古文과 今文에 差異가 있었음은 岩波文庫本¹¹⁾이나 岩垂憲德의 講話¹²⁾에 의하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니와¹³⁾, 우리나라로 온 孝經의 傳來에 對해서는 田川孝三씨도 三國史記¹⁴⁾ 高麗史¹⁵⁾ 그리고 實錄의 記事¹⁶⁾를 援用하여 略述하였거니와 韓國書誌年表¹⁷⁾나 韓國古書年表資料¹⁸⁾에도 그 年代順 記錄이 나와 있다.

그리고 孝經大義의 여러 가지 版本에 대하여는 韓國古書綜合目錄¹⁹⁾에서의 紹介에 의하여,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있으며, 이 孝經大義의 後印本인 平壤府活字印本²⁰⁾ 그 覆刻本인 仁祖9年(1631)의 史庫奉藏本²¹⁾, 顯宗 7年(1666) 內賜本²²⁾, 英祖 13年(1737) 內賜本²³⁾, 英祖 30年(1754) 輔養廳重刊本²⁴⁾, 純祖 3年(1803) 泰仁田以采朴致維本²⁵⁾ 純祖 19年(1819) 春坊藏板本²⁶⁾, 開國 493年(1884) 廣印社重刊本²⁷⁾ 등등이 있어 그 全文을 알 수 있거니와, 孝經經解도 여러 版本이 行하여져 있으니²⁸⁾ 그 內容은 능히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더구나 最近에는 李民樹씨의 經文과 傳의 現代譯²⁹⁾마저 나와 있으니, 누구나 알고 있으므로 이 孝經에 대하여는 이만 紹介한다.

三. 이 活字에 關하여

이 孝經大義에서 筆者가 가장 궁금히 여기는 것은, 이를 印出한 中字나 小字보다도, 그 特大字이다.

1. 書體와 字本.

이 大字의 筆書者나 字本은 分明치 않다. 이 當時에 生存하고 있던 李山海, 韓濩등 大字의 善書者 以外에도 많은 善書者³⁰⁾가 있었으나, 實錄이나 다른 文集에 그 記錄이 없는 限, 分明히 指摘할 수가 없다.

한가지 斷言할 수 있는 것은 石峰千字文³¹⁾이나 類合³²⁾, 그리고 訓蒙字會³³⁾ 같은 大字로 쓰여져 刊行된 印刷物의 字體와 對照하여 본 結果, 전혀 다른 사람의 글씨라는 點이다.

2. 代表字.

이 活字로 찍은 經과 傳등의 本文과 卷首題와 卷末題 그리고 本文의 章目을 통털어 살펴보면, 全部가 1,716字이다³⁴⁾.

이 活字에 있어서의 代表的인 字體를 들라고하면 “子”와 “以”字들 수가 있다(圖3 參照) 이 글자는 比較的使用頻度가 높은 글자에 屬한다³⁵⁾. 이 中 “子”字

는 다른 特大字와의 比較에 있어 첫 劃의 始作하는 部分이 點을 찍거나 꾸부림이 없이 平平하게 始作한 點이다. 이 글자는 資治通鑑綱目續編³⁶⁾의 “子”字와 같은 點이 있으나, 거기에서는 鈍하게 始作하는 反面에 이 活字는 銳利하게 始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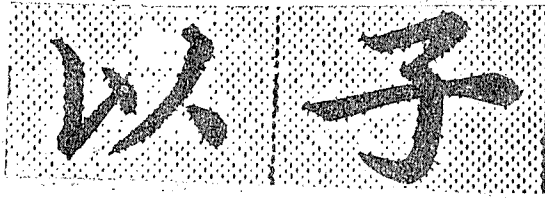


圖3. 代表字

한편 “以”字는 세번째의 點(·)의 位置와 첫번째와 두번째 劃이 交食推步法(假令)大字³⁷⁾와 같이 一筆로 이어쓴것 같은 것은 다른 特大字에서는 찾아 볼수 없는 特徵을 지니고 있다.

3. 活字의 材料.

이 活字에 대하여는 田川孝三씨는 그 成分을 밝히지 않아 알수 없지만, 그 書影에 의하면 註의 小字나 序·跋의 中字와는 달리 木活字같은 印象을 주고 있다³⁸⁾.

이렇게 特大字나 中·小字의 成分이 다른 것은 일찌기 所謂 “丙辰字”가 鉛이며³⁹⁾, 春秋綱字가 木⁴⁰⁾, 所謂 “倣丙辰字”⁴¹⁾가 木, 綱目續編⁴²⁾의 大字가 木인것과 같은 경우인것 같다. 왜냐 하면 中·小字는 마침 있는 鑄字를 使用하였지만, 特大字는 새로히 鑄成하거나 造成해서 使用하는 것은 所謂 “丙辰字”⁴³⁾, 交食推步法(假令)大字⁴⁴⁾, 訓辭大字⁴⁵⁾, 德宗筆書大字⁴⁶⁾, 正韻大字⁴⁷⁾, 등등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라 쉽게 알수 있다.

이 活字가 木活字라면 單字나 連字나 의 問題⁴⁸⁾도 考慮되어야 된다. 連字가 木板인 경우의 現存 實物에 대하여는 白麟先生이 일찌기 言及한 바⁴⁹⁾ 있지만, 朝鮮朝 壬辰(1592)前·後期의 官造活字뿐만 아니라, “地方官造나 民間造成의 活字들도 그 印刷한 實物은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다.

一般的으로 鑄字나 木活字에 있어서의 單字나 連字나 의 判別方法은 적어도 아래와 같은 調査가 必要하다.

첫째. 아랫字와 윗字의 墨色이 호른가?

둘째. 윗字와 아랫字의 서로 닿은 部分이 密着되어 있는가? 同時에 立體顯微鏡에 의한 檢鏡에서 그 捺印된 자욱의 凹凸이, 깊이가 다른가?

셋째. 木活字 일때에 木理의 方向이 같은가? 등이다.

4. 이 活字가 이루어진 時期.

이 活字가 이루어진 時期에 대하여는 이보다 앞선 같은 活字의 印出本이 出現하지 않는限, 西涯 柳成龍의 跋文이 이루어진 宣祖 22年(1589)6月⁵⁰⁾과, 內賜된 宣祖 23年(1590) 9月 사이로 一次 推定할수 있다. 그 中에서도 이 活字가 이루어진 것은 前者에 더 가깝다. 그 理由는 跋文에도 言及된것처럼, 이 책을 刊行코자 하였을 때에는 이 活字가 準備中이거나, 이루어 졌을 때 檢査할수 있기 때문이다.

5. 만든 機關과 使用期間.

이 活字를 만들게 한 것은 宣祖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만든 機關은 校書館이다. 그것은 이 當時에는 모든 印書行爲는 校書館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刊經都監이 革罷된지는 오래이며, 鑄字所조차 없어지고, 特히 鑄字를 새로히 鑄成코자 할때에는 鑄字都監을 設置한 것을 보아도 알수 있다⁵¹⁾.

어쨌든 이 活字는 그 現物이 남아 있지 않으니, 아마도 壬辰年(1592)의 戰時에 없어 졌을것으로 생각된다⁵²⁾.

5. 다른 印出本들.

앞에서도 잠간 言及하였지만, 이 活字와 비슷한 活字로 印出한 책으로는 類合을 들수가 있다. 그러나 한 字 한字를 맞추어 보면 字體가 전혀 다른 것을 알수 있다. 어쨌던 이 活字로 印出된 책이 따로이 發見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떠한 책이 더 印出되었는가는 알수 없다. 그런데 한가지 더 印出되었을 可能性이 있다. 그것은 忠經이다.(圖4 參照) 그 理由는 이 大字 印出本을 轉刻해서 印出한 것으로 보이는 大字包含 本板本인 孝經大義가

乾隆二年(1737)十月十八日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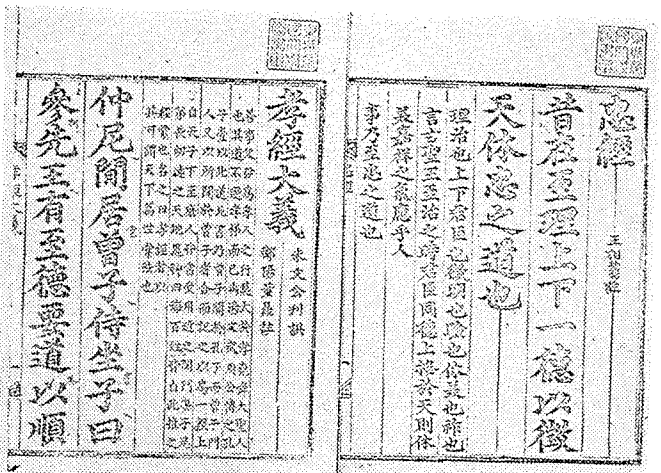


圖 4. 英祖13年內賜 孝經大義·忠經 1. 1A

날짜로 侍講院에 나린바 있으며, 같은 해인 英祖13年(1737)의 같은 날에 忠經 역시 大字包舍 木板本으로 頒行된바 있고⁵⁴⁾, 또 開國 493年(1884)에 廣印社에서도 孝經大義와 忠經이 同時에 刊行된 것⁵⁵⁾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確證은 아직 없다.

四. 이 活字의 字名

이 特大字의 字名에 대하여는, 그 造成의 日字가 分明히 밝혀진 文獻이 나오지 않는 限 干支로서 表示할 수가 없다. 그리고 干支로 表示하는 것에 대하여는 筆者는 여러번 反論을 펴온바⁵⁶⁾ 있거니와, 歷代 實錄⁵⁷⁾이나 群書標記⁵⁸⁾, 그리고 增補文獻備考⁵⁹⁾에 明記되어 있지 않는 干支를 붙인 字名을 命名하는 것은 混亂의 우려가 많다.

여기에, 筆者는 이 特大字의 字名을 「孝經大義大字」로 假稱하고, 이보다 앞선 大字의 印出本과, 그 뚜렷한 文獻의 出現을 기다려 고쳐 부를 것을 提案한다.

五. 所謂 “庚辰字”에 대하여

위에 言及한 孝經大義의 印出에 있어서, 그 特大字는 孝經大義大字로 印出되었고, 또 中·小字는 所謂 “庚辰字”로 印出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 “庚辰字”에 대하여 再考할 必要가 생긴다. 原來 이 “庚辰字”라는 名稱의 使用은 田川孝三씨⁶⁰⁾와 다른 여러 活字本 研究人들에 의해 使用되어 왔으며, 또 그 根本文獻을 여러 가지 들고 있는바, 이를 잠간 再檢討하여 이 본다면 光海君日記에

庚辰 先王又命改造甲寅字通行一國⁶¹⁾

이라 있으니, 이는 光海君이 父王의 庚辰年(1580)에 甲寅字를 改造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니, 이때는 光海君이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이 事實이 그 後에도 말이 있었음으로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리고 實錄은 史官이 記錄한 資料를 土臺로 이루어진 것도 念頭에 두어야 한다.

또 宣祖實錄에

印出之字自 內下賜及 平壤字則皆是庚辰所造而 訓練都監字則乃乙亥所造故大小體樣略不相似不可混用 窺聞功臣都監有庚辰字云以乙亥字換用何如⁶²⁾

함을 들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乙亥所造字는 訓練都監字이며, 庚辰所造字는 內下賜된 것과 平壤字라고 分明히 밝히고 있는 造成된 즉 木刻된 木活字를 意味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庚辰字가 功臣都監에 있다고 하였으나 이것 이 鑄字라는 事實에는 言及한 일이 없다. 同時에 庚辰

字가 乙亥字體의 改鑄라면 굳이 다시 乙亥字를 들먹일 必要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事情으로 보아 여기의 庚辰字는 甲寅字의 改鑄字 이거나 庚辰所造의 木活字를 意味하며, 乙亥字는 乙亥所造의 訓練都監字를 意味할 수 있는 可能性도 생각할 수 있다.

만일 庚辰字가 木活字라면 內下賜된 活字中 甲寅字體로 된것은 前記 光海君 日記의 記事와도 符合되며, 또 所謂 “甲寅字體訓練都監字⁶³⁾”나 所謂 “蜀體字體訓練都監字⁶⁴⁾”라 불리우는 活字일 可能性이 크다.

한편 庚辰字가 鑄字라면, 이는 甲寅字體의 改鑄字인 所謂 “癸酉字”일 可能性도 크다. 或者는 眉巖日記의

甲寅字鑄成鑄先受出四百六十六斤一兩一錢鑄字 鍊正者三百九十七斤錢餘鐵十六斤二兩鑄末二十七斤⁶⁵⁾

을 들어 甲寅字가 改鑄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改鑄된 直後에 印出된 鄉約⁶⁶⁾, 朱子大全⁶⁷⁾, 政和本草⁶⁸⁾ 등⁶⁹⁾을 보아도 모두가 乙亥字이니 理解할 수가 없다.

더구나 壬辰戰(1592)以後에 歷代實錄을 補印할 때 쓴 活字는 所謂 “宣祖實錄字”⁷⁰⁾라는 木活字이니, 여기에 多少의 鑄字가 混用되었다는 치더라도, 이들 庚辰字나 乙亥字가 木活字아닌 鑄字라는 斷定을 내리기는 困難하다.

그리고 같은 宣祖實錄의

此武經七畫不映其不映之卷有處求得全帙二三件 以乙中亥庚辰字刻日印出入內⁷¹⁾

만 하더라도 現存 實物中 所謂 “訓練都監字”本은 實在하고 있으나⁷²⁾ 甲寅字나 乙亥字의 鑄字로 印出된, 이 當時의 印出本이 出現하거나, 또는 그 책의 印出記나 版式의 特徵이 分明히 밝혀지지 않는 以上, 이 記事의 乙亥庚辰字가 乙亥字體의 鑄字라고 斷할 수는 없다.

특히나 이 孝經大義의 序·跋이나 孝經諺解를 찍은 中·小字의 書影을 擴大鏡으로 檢査한 所見으로는, 어디까지나 補字가 많은 乙亥字體의 鑄字로서, 이 補字는 적어도 第3~4차례에 이루어진 大대의인 乙亥字體의 補鑄이며, 같은 活字의 印出本으로는 朱子大全⁷³⁾, 簡易勝溫方⁷⁴⁾, 文山先生文集⁷⁵⁾, 匪隱先生集⁷⁶⁾ 등 分明한 印出記錄이 있는 책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特別히 “反庚辰字論”이 準備中에 있으므로 別論하거나와 마찬가지로 所謂 “癸酉字”에 대하여도 異見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역시 다음 機會로 미룬다.

六. 끝으로

以上으로서 從前에 그 轉刻本에 의하여 궁금하였던 孝經大義를 田川孝三씨의 紹介에 의해 알게 된바, 孝

經大義에 의해 簡單한 차례를 살펴보고, 孝經大義의 特大字에 대하여 言及하였으리, 이 特大字의 字名을 孝經大義大字라 假稱할것을 提案하였고, 所謂 “庚辰字”의 根據文獻에도 잠간 言及하였다. 이렇게 하나 하나의 活字에 대한 調査報告가 進行되므로써, 우리民族의 슬기로운 所産인 活字에 대해 寄與되는바 있기를 바랄뿐이다. 同學의 叱正을 바란다.

<註>

- 1) 筆者. 高麗金屬活字活字本과 그 起源. 도협월보, v.14, n.8, p. 8~12. (1973.8)
- 2) 7. 孫 寶基. 韓國印刷技術史. 韓國史大系 III 科學技術史. 서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p. 965~1061. 1. 白 麟. 韓國圖書館史研究.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9. p. 173~225. “李朝時代의 鑄字印刷”.
- 3) 筆者編. 韓國古書綜合目錄. 서울,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68. 1439, 72p.
- 4) 筆者. “交食推步法(假令)” 大字考. 도협월보, v.15, no.7, p. 2~6, 12. (1974.7) 註 3 參照.
- 5) 筆者, 編. 未刊原稿.
- 6)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藏. A10-A2A.
- 7) 이 책은 世宗 18년에 始作하여 3年 後인 世宗20년에야 完成되어 11월에 新鑄한 綱目大字로 印出된것이 實錄의 記事와 序·印出記에 의해 알려졌으나, 그 轉刻本으로만 代할수 있었던것이 柳氏藏本·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石淵文庫本·蓬左文庫本등이 實存함이 再確認된 경우이다.
- 8) 田川 孝三. 庚辰字本 孝經諺解と 小學諺解. 朝鮮學報, 第二十七輯, p. 62~86. (1963.4)
- 9) 本稿「五 所謂 “庚辰字”에 대하여」參照.
- 10) 柳 成龍. 西厓先生文集卷十八, 1.4A~5B. (서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4291(1958) 影印本, p. 306~7) 에도 全文이 있음.
- 11) 孝經·曾子. 武內義雄·坂本良太郎, 譯註. 東京, 岩波書店, 昭和 15(1940) (岩波文庫, 2352~53)
- 12) 岩垂憲德, 孝經講話, 東京, 藤井書店, 昭和 19(1944)
- 13) <一柳知成氏蒐集> 孝經諸本展觀目錄. 京都, 大谷大學圖書館, 昭和9(1934)에 紹介된 以外에도 많은 譯·註·影印·解說本이 있다.
- 14) 9-3B, 10-3B, 38-12A·B, 46-1B 參照.
- 15) 2-28A2·3·4, 7-38B4, 10-24B5·6, 16-29A4, 22-30B8, 73-8B2, 74-29A1, 99-6B4, 105-25A9, 110-34A.
- 16) 3-171, 3-181, 8-452, 15-270, 19-273, 19-287, 24-610, 40-279. 등.
- 17) 筆者編.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p. 1, 2, 4, 13, 15, 31, 33, 45, 46, 50, 64, 68, 74, 84, 89, 93, 100, 102, 129, 132, 147 등.
- 18) 筆者編, 韓國古書年表資料. 서울,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68. 同補 1972.

- 19) 註 3同. p. 824 및 1432.
- 20)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藏 華山文庫本 A10-A2D.
- 21) 奎章閣圖書 中國本. 1131, 1137, 1912 등 多數.
- 22)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藏 古 1328-1A
- 23) 奎章閣圖書 中國本 1072 등
- 24) 國立中央圖書館藏 古朝 08-3
- 25) 註 5同, 등
- 26) 文化財管理局 藏書閣事務所藏 1-139.
- 27) 漢陽大學校 中央圖書館藏.
- 28) 註 3同, p. 824~5.
- 29) 孝經(外) 李 民樹, 譯. 서울, 乙酉文化社, 1971. (乙酉文庫, 57)
- 30) 金 舜東. 韓國故事大典. 大田, 回社社, 1969. “十九 書誌考” p. 710~713.
- 31) 千字文. 韓 茂, 書. 1583 奉敬書. 木板本.
- 32) 柳 希春. 新增類合. 1576跋. 木活字本.
- 33) 崔 世珍. 訓蒙字會. 木板本.
- 34) 이 중에는 半葉에 大字 50字로 꼭차 있는 張이 8面이나 된다. 즉 6B, 8B, 15A, 31B, 39B, 40A, 46B, 51A 등이다. 이 統計는 田以采朴致維本에 依하였다.
- 35) 筆者는 “校書館의 字數에 關한 研究”를 通래 그 類度順을 調査하여 代表的인 多使用字를 確認한 바, 于先 35字를 들면 “之, 而, 也, 以, 不, 其, 於, 曰, 人, 爲, 王’ 上, 下, 者, 臣, 則, 矣, 中, 大, 有, 文, 一, 是, 此 所, 天, 于, 日, 事, 地, 無, 月, 子, 三, 乎”의 順이다
- 36) 資治通鑑綱目續編, 商 輅(明)等受命編, 正祖, 御定. 英祖49(1773) 活字本.
- 37) 註 4同.
- 38) 筆者. 淳碧樓重修記와 같은 活字 印本들, 反“聚珍字”論. 圖書館學, 第三輯, p. 64~65. (1973.12)
- 39) 成 倪. 慵齋叢話卷之七 1.12A.
- 40) 安 春根. 春秋綱目活字新說. 國會圖書館藏, 第4卷第11號 p. 8~11. (1967.11)
- 41)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藏 石淵文庫 貴17.
- 42) 註 36同
- 43) 註 39同
- 44) 註 4同.
- 45) 筆者. “訓辭” 大字考. 未發表原稿.
- 46) 筆者. 德宗筆書體大字考 : 그 字名을 中心으로. 未發表原稿.
- 47) 筆者. 正韻大字考, 未發表原稿.
- 48) 白 麟. 朝鮮後期 活字本의 形態書誌學的 研究·宣祖25~ 隆熙 4年 사이의 奎章閣所藏圖書를 中心으로, 下, 韓國史 研究, 4, p. 144~147. (1969.6) 特히 “20. 春秋綱字” 및 “21. 綱目大字”.
- 49) 上掲書.
- 50) 西厓先生年譜卷之一 1.18A. (影印本 註 10同 p. 433)에 “十七年己丑(先生四十八歲) 六月承 命製造孝經大義跋“
- 51) 註17同. p.45.

- 52) 光海君日記, 光海君 10年戊午 7月22日(影印本 29—615)에 “不幸一經兵燹舊字蕩失”한 以外에도 文獻은 많다.
- 53) 註 18同. p.48.
- 54) 上掲書 同.
- 55) 註 27同.
- 56) ㄱ. 註 4同, p. 196~7,
 ㄴ. 註38同, p. 77~78.
 ㄷ. 筆者. 倣聚珍版式印書體完管木活字印本の 一例. 등
 대문도서관보, 제3호, p. 43~49. (1974.4) 中 特히 p.
 48~49.
- 57) 註 4同, p. 12. 註 55參照.
- 58) 上掲書, 註 56參照.
- 59) 上掲書, 註 57參照.
- 60) 註 8同.
- 61) ㄱ. 光海君日記卷百三十. 光海君10年戊午7月22日戊申.
 (影印本 26—615F) 및
 ㄴ. 光海君日記(鼎足山本)第一百三十一.7.29B~30A. 光海
 君10年戊午7月戊申(22日)(影印本 33—134上·下) 上掲ㄱ
 과 同文.
- 62) 宣宗大王實錄卷之一百六十四 1.16A. 宣祖36年癸卯7月

- 丁丑(23日) (影印本 24—506)
- 63) 註 2 ㄴ 同, p. 199~202.
- 64) 金斗鍾. 近世朝鮮後期 活字印本에 關한 綜合的 考察.
 大東文化研究, 第4輯. p. 1~73. (1967.7) 中 p.11~12.
 “二. 訓錄都監字.”
- 65) 註2. ㄴ 同, p. 191~5. “13. 癸酉字”.
- 66) 柳希春, 眉巖日記草 四. 朝鮮史編修會, 編. 京城, 朝
 鮮總督府, 昭和 13 (1938) (朝鮮史料叢刊, 第八) p.164.
 “癸酉十一月初六日”條.
- 67) 註17同, p.60. “宣祖 7年 (1574) 2月”條
- 68) 上掲書, p.61. “宣祖 8年(1575) 5月”條
- 69) 上掲書同. “宣祖10年(1577) 2月”條
- 70) 註 64同, p.5. “1. 宣祖實錄字.”
- 71) 宣宗大王實錄卷之二百十 1.2B. 宣祖 40年丁未4月乙未
 (3日) (影印本 25—320)
- 72) 註 3同. p.237.
- 73)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藏 華山文庫本 貴 73
- 74) 同上.
- 75) 同上. 景和堂文庫本. 貴 74.
- 76) 同上. 蔚菴文庫本. 貴 8號

小公洞 六번지

스산한 초겨울의 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된다. 금년도는 겨울이 일찍 닳아 옷깃이라는 관상대의 일기예보가 適中한 것인지, 初겨울 날씨가 유난히도 번덕스러운 매다가 平年 기온보다 2,3度 낮은 기온이란다. 그래서 그런지 화단의 화초들도 유난히 추위를 타는 모양으로 겨울 준비에 서성거리고 있다.

小公洞 6번지—, 서울의 최고 中心街인 이곳에 마치 오아시스 모양으로 고층건물들 뿐인곳에 조그마한 화단이 하나 있다. 이 화단에는 각종 장비를 비롯하여 사철나무 그리고 갖가지 화초들이 있어 초봄부터 초겨울까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연속으로 꽃과 잎이 피고 지는 아담한 화단이다.

이 화단에는 한그루의 상징적인 향나무가 서있다. 이 향나무는 매년 더 자라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면서 고고하게 그 모습을 지키고 서 있다. 이 향나무는 지금부터 40여년전 소공동 6번지의 主人인 국립중앙도서관의 伴侶者로서 창세기의 모습을 그대로 지닌채 마냥 서 있는 것이다. 자라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시들어 버리지도 않으면서 싱싱하지도 못한 이 향나무, 그래서 소공동 6번지의 主人인 국립도서관의 상징적 모습이라 일컬을 수 있는 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향나무의 患節을 외면한 채 소공동 6번지의 主人은 계시판에 임시 휴관하겠다고 써 부치고 말았다. 새로운 번지로 이전하기위

한 준비때문에 임시 휴관하고 이전준비가 끝나던 세번지 새 청사에서 개관하겠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이 향나무는 主人으로부터 아주 버림을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새 主人을 맞이 하게 될 것인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소공동 6번지에서 떠나는 것만은 틀림 없는것 같다. 이러한 운명을 맞이한 이 향나무를 아는 이는 측은한 想念에 사로잡히고 만다. 그러나 이 향나무는 오히려 主人을 격정한 단다. 그래서 더욱 孤高하다.

小公洞 6번지를 이 향나무와 함께 반세기동안이나 지켜온 국립도서관은 호벨에 정든 번지를 어쩔수없이 넘겨주고 떠나게 되었지만 그의 이전에 대하여서는 당초부터 큰 관심과 물의를 이트켜 왔다. 국가 중앙도서관으로서 그간의 침체를 벗어나 이상적인 시설과 장소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 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도서관계에서는 물론이지만 각계에서 큰 관심을 표명하였고 더욱이 우리나라 兩大政黨에서도 이 문제를 일시 舉論한바 있었다.

어쨌든 국립도서관은 풍치좋은(?) 높은 곳의 고층건물로 이전하게 되었다. 시설도 소공동 6번지의 3배나 더 넓다고 한다. 이만한 곳으로 이전하게 된 것만으로도 발전적(?) 이전이라고 말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바라는 바는 아니었다. 이제는 옛 소공동 6번지의 主人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상적으로 발전되기를 충심으로 바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